

“글로벌 본지정·RISE 사업 성공 힘쓰겠다”

‘취임3주년’이주희동신대 총장

“글로벌대학30 본지정에 집중하는 한편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의 혁신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주희(사진) 동신대학교 총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15일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총장은 ‘착한 인재로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인성교육을 강화해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TOGETHER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왔다.

특히 각 학과별 우수 학생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학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성스런 교육의 성과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졌다. 2025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동신대

지역 상생·동반성장 공유대학 실현

광주·전남 7년 연속 ‘취업률 1위’

에너지신산업 등 3대 분야 육성

유학생 1천700명…글로벌 역량 ↑

의 취업률은 69.2%로 졸업생 1천500명 이상 대학 중 전국 17위, 광주·전남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 총장은 또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할 연구기지로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문화관광콘텐츠 등 3대 특성과 분야를 집중 육성해왔다.

전남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리더십최고위과정 개설은 물론, 전남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운



영 등 지역사회 전문성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준비에 걸맞은 글로벌 역량도 탄탄히 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이 1천700명을 돌파했고 5년 연속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선정, 국립국제교육원 지정TOPIK(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등 해외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언어·문화 교육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주희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이끌어내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싶다”며 “지자체, 산업계와 함께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산업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북부권 4-H연합회 담양서 한마음 체육대회

전남 북부권 4-H연합회는 “최근 담양 리조트에서 ‘제2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담양군4-H연합회 주관, 담양·함평·영광·장성군 등 4개 군 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청년 농업인과 지역 내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지역 간 교류와 세대 간 공감의 폭을 넓혔다.

행사는 지난 11일 담양리조트에서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철원 담양군수, 장명영 담양군의회의장, 이개호 국회의원,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담양군의회 의원, NH농협 담양군지부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2부 체육대회는 담양파라다이스 일원에서 레크리에이션, 수상 스포츠, 에어바운스 슬라이딩 퍼포먼스, 족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단순한 경쟁을 넘어 협동과 우애를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한별 담양군4-H연합회 회장은 “4-H는 우애와 봉사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을 이끄는 청년 조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매일신문, 신나라지역아동센터 NIE 1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된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14일 광주 서구 신나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NIE(신문활용교육) 1차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NIE 순회교육은 아이들에게 신문의 가치와 활용법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신나게~ 재밌게~ 함께 만드는 학교신문·가족신문’이라는 교재를 활용해 이뤄졌다.

학생들은 뉴스가 되는 사안을 파악하고, 뉴스

선택의 기준을 이해하며, 기사 작성의 기초와 특성 등 신문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했다.

교육에 참여한 정민하(상무초 5)·송도율(금부초 3)·이로은(마재초 3) 학생은 신문 만들기 위한 공급증을 질문을 통해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을 공모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 서미화 국회의원 초청 강연 개최

조선대병원은 최근 병원 하중현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15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장애 여성, 거리에서 국회로-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강연 후에는 3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연에서는 본인의 삶과 그간의 의정활동, 국회에서 펼치고 있는 복지정책 활동 그리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했다.

서미화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공간이며, 특히 장애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조선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순천교육청 ‘중등교원 평가 연수’ 성료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관내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S-Final 중등교원 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최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평가 문항 제작 역량을 심화하고 논술형 평가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동군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평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역량이 함께 자라는 평가 문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연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 ‘제5기 지역상생 도민참여단’ 발대식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4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제5기 지역상생 도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16명의 도민참여단은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의 비전, 주요 사업 소개, 도청 앞 전면광장 새이름 공모전 1차 심사가 이뤄졌다.

도민참여단은 2년 동안 공사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현장 모니터링 등 활동에 참여해 전남개발공사와 도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경찰, 교통안전시설 개선 주민 간담회

광주경찰청은 15일 광산구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와 광산구청, 도로교통공단, 주민자치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호 체계와 교차로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광주경찰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이 빈발하는 장소와 민원 다발 구간을 반영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장소 29개소를 발굴, 선정했다.

광주경찰은 선정된 장소에 대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소방학교, 교육혁신 경연대회 ‘우수상’

광주소방학교는 15일 “중앙소방학교 주관 ‘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노진성 광주소방학교 소방장이 ‘소방항공 구조구급대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체크리스트 개발’ 논문을 발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노 소방장은 교육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해당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 오는 11월 국가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제42회 공공HRD콘테스트’에 참가할 예정이다.

조현문 광주소방학교장은 “광주소방학교 교수가 소방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강의 능력 향상과 끊임없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케어랜드요양병원-경기이엠에스 ‘BRDS 치료’ 협약

화순케어랜드요양병원은 “최근 경기이엠에스와 ‘BRDS 치료기법’을 활용한 환자 중심 서비스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BRDS 치료기법 프로토콜 공동 개발 ▲상호 기술 지원 ▲의료 장비 및 기술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BRDS(Basic Remedy Doctor Solution)는 강알칼리 미네랄수와 사포닌 성분인 풍부한 홍삼을 기반으로 한한약을 이용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항염 효과를 극대화하는 치료법이다. 암과 만성·난치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대식 경기이엠에스 대표는 “BRDS 치료로 호전되는 환자를 보면서 지역민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협약을 했다”고 말했다.



최제승 화순케어랜드요양병원 원장은 “미네랄수는 건강에 이로울 수 있으나 과도한 섭취는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지도가 중요하다”며 “BRDS의 핵심은 산성화된 체액을 중성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초복을 앞두고 15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내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고윤순 서구 농성2동 적십자 봉사자 회장과 가족들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이날 고 회장은 320인분의 삼계탕을 지원했다.